

## 지역·분야 맞춤 포교... 자생력 가져야

### 조계종 전법단 3년, 의미와 과제

4월 30일 조계종 전법단의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재가자들을 포함한 지원조직 활성화와 CMS 등 장기적인 후원체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일선 현장의 네트워크와 시대변화에 맞춘 포교 진흥을 위해 창설된 조계종 전법단은 그동안 병원(단장 성법), 경찰(단장 도문), 군(단장 덕현), 대학생(단장 남진), 교정교화(단장 해원), 장애인(단장 도문), 체육(단장 퇴휴) 등 7개 직능분야 전법단과 광주·전남(단장 효진), 성남(단장 성행), 대구·경북(단장 허주), 대전·충청(단장 선일) 등 4개 지역 전법단이 구성된 상황이다. 전법단은 2년이 넘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각지대에서 포교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전법단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청소년 교화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인 117개 시·군·구 단위를 펼치기도 했으며 병원전법단의 경우 사찰음식 강연회, 불교인상지도자 심화교육과정, 명상치유 순례 등을 통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 대학생전법단은 1사찰 1대학 결연맞기 사업을 펼쳐 봉은사와 서울대·서울교대 등 5개 대학 결연을 맺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에도 포교 일선의 활동가들은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법단은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법사단과 포교사를 비롯한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법지원단, 일반신도들로 구성된 후원전담조직인 전법후원단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총 11개 전법단에 소속된 지도법사 스님들은 총 384명인 반면 스님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취약부분을 보완해 줄 전법지원단은 97명에 불과한 것. 전법지원단 단원

이 대부분도 포교사들이지만 포교사단과의 연계활동이 미흡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법단 활동이 스님들의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로

**장애인, 체육, 병원 등 포교사각지대 활동 늘어**

**지도법사 지원조직 적어**

**활동가 지변확대 과제**

**CMS 등 재원 마련도 관건**

스님들 위주로 전법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재가단체나 하부조직 구성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활동에 나서야 한다. 대중의 역량 결집이 되지 않으면 결국 포교 활동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

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후원조직 확보도 전법단의 장기적인 활동의 과제로 꼽힌다. 11개 전법단 중 종단 예산 외에 CMS 정기후원체계가 도입된 곳은 교정교화전법단이 유일한 상황이다. 종책 변화에 따른 예산 책정 여부에 전법단 활동이 영향받지 않으려면 소액후원 등 일반 불자들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손윤홍 교정교화전법단 사무과장은 "CMS 도입 후 활동하는 스님과 지원단들도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후원자들도 기본 계좌 당 2000원씩이기에 비교적 많이 호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확실한 활동영역이 있는 직능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가 모호한 지역전법단에 추진과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철 교수는 "병원전법단 등 직능분야는 호스피스, 간병인 등 재가자들의 참여영역이 있기에 비교적 후원이 잘되고 봉사활동 등 참여율

도 높다. 지역전법단도 지역 사안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역불교대학 운영 등 장기적 사업목적을 선정해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법단에서는 전법단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 참여를 이끌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정기 워크숍을 개최해 포교사업 연계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전법단과 다양한 포교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법지원단과 전법후원단을 활성화해 전법활동이 자생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3주년을 맞는 4월 30일 어린이청소년전법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단장에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성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이 선출됐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봉축위, 연등회 포스터 배포

불기2557(2013)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 포스터가 일반에 공개됐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3월 25일 발표한 부처님오신날 포스터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봉축 표어와 함께 자주빛과 푸른빛 연꽃이 함께 표현돼 있다.

지난해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 포스터도 눈길을 끈다. 노량과 검정의 보색대비로 연



등사자와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는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행사가 소개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처님오신날 포스터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종일 기자

###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니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중심에 불날 씨앗을 뿌리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 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입문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목표를 심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교원장 스님 등 '어린이에게 불서를...' 캠페인 동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승묵스님과 포교원 교역직 스님, 종단합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이 캠페인에 동참 금일봉을 회사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주)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보급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3월 28일 조계종 사회부가 개최한 외국인 스님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이 한국어 전통 의식으로 입재식을 갖고 있다.

## "한국불교 이해 도와드립니다"

### 조계종 사회부, 3월 28일 외국인 스님 교육 실시

조계종 사찰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이해와 체류 기간 편의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범법)는 3월 28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2013년 외국인 스님 교육'을 개최

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에 초청돼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류 중 어려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부장 범법 스님은 "지구촌이라는 말은 오래됐지만, 세계 불제자들의 공동 의식은 아직 부족하다. 세계 불제자들은 불법을 실천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세계 각국의 스님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소개 영상 감상, 출입국 관리업무 안내, 스님들의 활동현황 조사 등이 진행됐으며, 교육 후에는 지음스님의 환경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을 관람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 무형유산 보존 법적 토대 마련

### 조계종 관련법안 입법예고

조계종은 3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통적인 불교가치를 지키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및 전승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안에 따르면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은 예비목록으로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지정한다.

유산 신청은 총무원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지정고시를 거쳐 성보보존위원회가 심의한다. 지정에 대한 결정은 총무원장이다.

한편,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4월 15일까지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02)2011-1773

신종일 기자



934호 INDEX	
종합	2·3
홍원사 '자격 찾기' 불사 BBS 이사장 해임안 발의	
법정 스님 출판물 중지 요청	
시방세계	5
고려대장경연구소 20년	
함께가요 강의실	8
불교와 물리학-양형진 교수	
봄맞이 템플스테이·축제	12
해외	18
불법이 경역가치 꽃 메타엔진사	

## 2013년 친환경 초의차 선금 할인 행사

###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초의차

최고의 품질, 순수한 무공해 친환경 초의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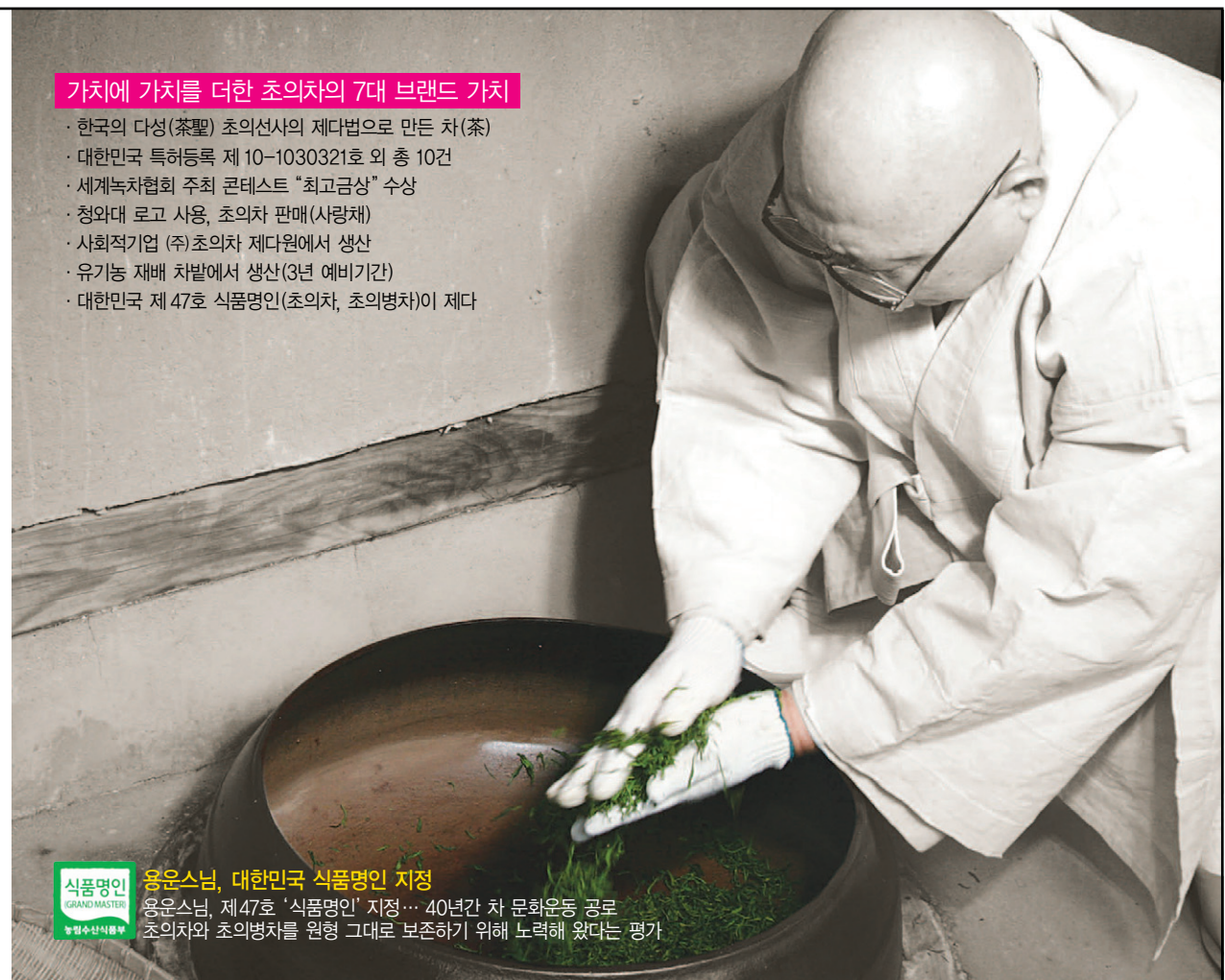
유기농 초의차는 지난 7년간 방치해서 웃자란 차나무를 밀동까지 베어내어 갱신을 한 차나무에서 생산한 차입니다. 방치한 동안 자연 유기농 상태가 되어 그대로 관리하여 최상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시기도 조금 늦지만 9년만에 생산하는 무공해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친환경 초의차와 함께 차향 그득히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9년만에 생산하는 첫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판매가	할인가	수량(선착순)	선금주문기간	배송기간
첫물차	150,000원	60,000원	300통 한정	4월10일까지	5월10일까지
두물차	100,000원	40,000원	500통 한정	4월20일까지	5월20일까지
세물차	50,000원	20,000원	800통 한정	4월30일까지	5월30일까지

● 주문방식 : 온라인 www.choyeetea.co.kr / ☎ 061)285-0301~2 주문도 가능  
※ 10만원 미만 택배비 3,000원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업 301-0100-9481-71 / 국민 796201-01-453893 (예금주) 주식회사 초의차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신품명인 유운스님,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유운스님, 제 47호 '식품명인' 지정... 40년간 차 문화운동 공로 초의차와 초의병차(천의차, 초의병차)이 제다